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전통예술 분야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전통예술 분야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서류심의) 2023년 12월 5일(화) 13:00 ~ 18:00 / 서울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2차 인터뷰심의) 2023년 12월 12일(화) 09:00 ~ 18:00 / 서울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진이, 송현민, 오경희, 이종혁, 천재현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사업은 공연예술의 창작 주체인 예술단체, 축제, 창작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술현장의 각 분야별 중추적인 역할과 활동을 하는 “창작주체”의 중장기적 활동 여건 보장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및 활력을 제고하는데 지원 취지를 두고 있다. 전통예술 장르에는 총 35건의 지원작이 접수되었고, 그 가운데 필수자료 미제출 등 행정결격 사업 1건을 제외한 34건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의를 통해 17건을 선별하여 2차 인터뷰 심의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14건을 선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전통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연주자, 기획자, 창작자, 평론가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심의는 1차(서류심의)에서 사전 검토와 각 심의위원의 개별 채점 및 종합된 결과를 놓고 진행된 토론 심의, 2차(인터뷰심의)로 지원단체 대표자와의 대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을 검토, 심의기준에 의거해 채점하는 서류 심의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별로 채점 결과 다득점 순으로 결정했다.

처음부터 절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심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전통예술은 오래된 소재와 악기를 토대로 하는 장르지만, 한편으로 창작을 통해 동시대적 감수성을 흡수하고 발전하는 중이다. 따라서 지원단체들이 품고 있는 경향을 살펴보고 그에 걸맞은 굵은 원리를 도출했고, 이를 토대로 동시대적 감수성과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는 작품을 탐색해나갔다. 그러면서도 절대적인 기준이란 것이 심의 동안 작용했는데, 이는 최종적인 결과물로 구체화(구현화)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현실성), 예산과 작품 규모·성격 비교, 축제와 창작공간을 통한 전통의 계승 의지와 창작의 균형 잡기, 참신한 기획력과 실현력 등이었다.

무엇보다 많은 단체가 본 사업을 통해 작업과 작품의 지속성과 연결성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심의위원회는 향후 3년간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과 정확한 실행계획, 중장기적 성장과 활동 기반의 안정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연관된 예산 항목의 구체성을 살펴보았다.

전통예술의 경우 다른 장르와 달리 지역의 문화에 특화된 예술과 예능 종목이 있다. 지원자 중에는 이러한 지역 콘텐츠를 활용한 이들도 볼 수 있었다. 지역불균형 지원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지원제도’(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적용해, 개인 및 단체 등록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의 예술단체, 축제, 창작공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지원단체들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본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부분 2024년의 계획을 뚜렷하고 확실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결실을 맺으려는 노력과 지속적인 계획을 보여주었다. 사업의 성격이 다년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몇 지원자를 단년으로 선정(조건부 지원)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는 2024년 계획에 비해 25·26년의 계획이 상대적으로 빈약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년’의 지원을 행한 이유는 그들의 중장기적 활동과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움이 되고 기준이 된 것은 그들의 성실하고 꾸준한 활동 이력이었다.

심의에 있어서 예산 배분이 가장 예민한 문제다. 일단 지원자들은 사업 운영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 제한된 금액의 최대 액수로 기획하고, 기재한다. 따라서 예산에 대한 점검은 그 어떤 사업이든 꼼꼼한 과정을 거친다. 최종 예산 배분에 있어서 높은 점수와 평가를 받은 단체는 신청 금액과 유사한 근사치를 배정했고, 이후 집계된 점수(순위)와 예산 가용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무엇보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사업은 다년간 운영되는 지원 사업이기에 예산의 가용 액수와 범위가 그 어떤 사업보다도 큰데, 이를 잘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는 실행력과 현실적 능력을 갖추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았다.

끝으로 공연제작, 축제운영, 창작공간으로 진행된 본 심의에서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공연제작 분야였고, 창작공간이 가장 저조한 현상을 보였다. 과거에 비해 전통예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극장 규모의 공간이 많이 퇴조하고 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공간에 기획력을 더해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지원제도로, 앞으로 예술가들과 예술 공간들이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전통예술 분야 심의위원 일동